

‘파죽지세’ 광주FC, 대전 제물로 5연승 도전

내일 K리그1 18R 원정 경기
‘멀티골’ 토마스, 자신감 충전
전남은 청주서 첫 3연승 도전



‘돌풍의 팀’ 광주FC가 승격 동기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FA컵 포함 5연승에 도전한다.

광주FC는 1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질풍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7일 수원삼성과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내줬음에도 후반 중반부터 분

위기를 뒤집는 저력으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최근 리그 3연승, FA컵 포함 4연승을 질주하는 동시에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고 파이널A권인 6위까지 뛰어올랐다. 똑같이 승점 24점을 획득한 전북현대, 대구FC를 다득점에서 따돌린 결과였다.

올 시즌 최고의 기세를 자랑하고 있는 광주의 이번 상대는 승격 동기인 대전이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앞둔 대전 원정 경기에서 기세를 이어가고 끝맛 같은 휴식을 갖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지난 경기 주인공은 ‘브라질 피니셔’ 토마스였다. 토마스는 후반 8분 투입돼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화려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

로 공격해 활기를 불어넣었고 후반 23분에는 동점골, 후반 추가시간에는 역전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하며 대역전극을 써냈다.

토마스와 호흡을 맞춘 이희균 역시 활발한 움직임과 지지치 않는 에너지로 역전승에 기여했고 김한길과 박한빈, 정호연, 아사니 등 중원 자원들도 적극적인 공격 전개와 과감한 슈팅 시도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탄탄한 수비를 자랑함과 동시에 공격에서도 과감한 가담과 적극적인 시도로 날카로운 모습을 뽐내는 티모와 두현석 역시 맹활약 중이다.

이번 상대 대전은 시즌 7승 4무 6패(승점 25)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와 함께 승격 팀 돌풍을 이끌고 있고, 과감한 투자로

모든 포지션이 더블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는 두꺼운 선수층을 구축하고 있다.

티아고와 레안드로, 마사 등 화려한 외인들이 공격을 이끌고 김영욱과 주세종, 이현식, 이진현, 김인균 등 탄탄한 허리를 갖췄다. 안톤과 김민덕, 오재석, 임은수 등이 버티고 있는 수비진과 이창근이 지키는 골문 역시 든든하다.

광주는 반드시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 K리그2 챔피언의 위용을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대전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0패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 승리 시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현재 리그 순위 역시 승점 1점 차이여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해 첫 맞대결에서는 0-0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 2승 2무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 자신감에 차있다.

한편 올 시즌 첫 리그에서의 연승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전남드래곤즈 역시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3연승에 도전한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충북청주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3 1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신생팀인 충북청주와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3-0 대승을 거두며 프로의 매운맛을 선보였다.

광주와 전남 두 팀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 토마스(왼쪽 세번째)가 지난 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뒤 벤치로 달려가 이정호 감독과 함께 포효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토마스 “멀티골은 감독 덕분”

7일 수원전 데뷔골·역전골 활약
“태국에서부터 많은 대화 나눠...
득점 순간 아내도 눈물 흘렸다”

‘브라질 피니셔’ 토마스 자구아리비 베디넬리가 길었던 침묵을 깨고 광주FC의 FA컵 포함 4연승의 선봉에 섰다.

그는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모두 ‘호버지’ 이정호 감독과 아내에게 공을 돌렸다.

토마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로 이적했지만 좀처럼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시즌 초반 네 경기에서 침묵한 뒤 부상을 입었고, 두 달 정도의 공백기를 가진 뒤 복귀했으나 부진해 이정호 감독의 애간장을 태웠다.

그랬던 그가 지난 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8분 교체 투입돼 동점골은 물론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골이자 결승골까지 터트리며 드디어 폭발했고, 경기 수훈 선수까지 거머쥐었다.

토마스는 경기 후 “너무 행복하고 두 골을 터트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저희 동료들이 좋아해 줘서 더 행복했다”며 “저희 홈 팬들이 매 경기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데 최근 꾸준히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더욱 행복하다”며 행복감을 드러냈다.

그는 길었던 득점 침묵을 깬 배경에 대해 “많은 리그를 거쳤고 여러 구단에서도 뛰었지만 제 자신을 항상 굳게 믿고 있었다”며 “오늘의 득점이 팀에게 역전승이라

는 큰 도움이 돼 너무 기쁘고, 저희 팀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경기에서 2골과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토마스는 이정호 감독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토마스는 “태국에서 감독님과 아주 많은 토론을 했고, 각각 의견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팀을 도울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눴다”며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고, 제가 게임을 뛰든 안 뛰든 항상 감독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지내왔다. 이 과정들을 통해 내가 진짜 남자가 될 수 있었다”고 확신했다.

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마스의 데뷔골에 대해 “토마스가 동계 훈련 때부터 저하고 전술이나 체력 등 여러 부분에 있어 다툼이 있었지만 많은 소통을 했다”며 “토마스가 골을 넣어서 저도 너무 기뻐하고, 그동안의 설움을 날린 것 같아서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제가 고향을 떠난 지 8년 정도 됐는데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아내가 항상 옆에서 다독여줬다”며 “당연히 제 아내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거다. 저 역시 필드에서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의 답답함을 집으로까지 가져가면서 아내가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슬퍼하기도 했다”며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오늘의 두 골을 모두 아내에게 바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8일 충북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음성 전국사이클대회 남자일반부 제외경기에 출전한 강진군청 김지호를 비롯한 선수들이 열띤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강진군청 사이클팀 제공

강진군청 신동인·김지호, 음성사이클대회서 금빛 질주

신, 개인추발 4km·김, 제외경기
강진군청 금 2 은 2 동 1개 획득

강진군청 사이클팀이 2023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박경준 감독이 이끄는 강진군청 사이클팀은 지난 5일부터 충북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 나흘째인 8일까지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수확했다.

신동인이 6일 열린 남자일반부 개인추

발 4km 결승에서 4분36초732의 기록으로 최재용(금산군청·4분39초566)과 장훈(의정부시청·4분41초000)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호는 8일 열린 남자일반부 제외경기 결승에서 박지환(한국국토정보공사)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지호는 7일 열린 남자일반부 포인트 30km 결승에서 28점을 획득, 32점의 민경호(서울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신동인·김상표·김지호·배승빈·안희상·김정민은 6일 열린 남자일반부 단체추발 4km 결승에서 4분15초744로 서울시청(4분12초342)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승빈은 8일 남자일반부 스크래치 15km 결승에서 1위 장훈과 2위 박건우(한국토지정보공사)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KIA 최원준 12일 전역... 김종국 “즉시 1군 콜업”

내·외야 수비 가능 멀티 포지션

최근 5할 승률이 무너지며 가을야구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KIA 타이거즈에 천군만마가 온다.

최근 외야 경쟁이 불붙으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김종국 감독의 구상까지 ‘즉시 콜업’으로 바뀌는 확실한 카드, 외야수 최원준(사진)이다.

현재 상무 야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외야수 최원준이 오는 12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원준은 외야수가 주 포지션이나 포지션 변경 전 주로 소화했던 3루수를 비롯해 1루수와 2루수, 유격수도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이다.

최원준은 상무 입대 직후인 지난해 퓨처스리그 92경기에 나서 타율 0.382(325타수 124안타)를 기록하며 호쾌한



타격감을 과시했다. 남부리그에서 최고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입대 전인 2020년과 2021년 두 시즌

간 KIA의 리드오프로 맹활약했다. 2020시즌 123경기에 나서 타율 0.326(359타수 117안타)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2021시즌도 전 경기 출장에 하나 모자란 143경기에 나서 타율 0.295(589타수 174안타)로 활약했다.

2020시즌 14개였던 도루를 2021시즌에는 무려 40차례 성공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타점과 득점도 두 시즌간 79점, 154점을 뽑아내며 스피드에 대한 장점을 발휘했다.

김종국 감독 역시 최원준의 복귀를 고

대하고 있다.

지난 6일 SSG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아직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군에는 합류한다”면서도 “엔트리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야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며 보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를 만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김감독은 8일 SSG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는 “최원준이 상무에서 1루도 보고 외야도 보고 준비를 모두 하고 있다”며 “외야뿐만 아니라 주전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1루와 3루 등 전전후 자원이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하면 곧바로 1군에 등록할 생각”이라며 “큰 부상이 없다면 콜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